

열사병

1. 원인 및 발생

열사병은 주위환경의 온도와 습도가 높아서 체온의 발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뜨거운 태양의 직사광선이 뒷머리와 목의 뒷부분에 오랫동안 쬐임으로서 나타나는 병이다.

우사 내에만 사육하던 소를 천막이 없는 차량으로 장시간 햇볕에 노출하여 운반하거나 그늘이 없는 곳에 묶어 두었을 때 발생한다.

또한 무더운 날씨에 통풍이 되지 않은 습한 우사 내에 많은 소를 계류하였을 때도 발생한다.

특히 여름철 비가 개인 후 고온다습한 날씨에 환기가 불량한 축사에서 사육하고 있는 곳에서 발생율이 높다.

2. 증상

열사병은 돌발적으로 발생한다. 발병한 소는 처음에는 멍청이 서 있다가 강제로 걷게 하면 비틀거리다가 주저앉는다. 그러면서 불안해 하고 입을 벌리고 호흡이 빨라진다.

체온이 상승하는데 직장의 체온을 측정하면 보통 39.5℃ 이상으로 올라간다. 체온이 41℃를 넘으면 호흡촉박과 전신적으로 동통이 나타난다. 체온이 더 상승하면 호흡은 얇고 불규칙해지며, 맥은 약하고 빨라지고, 흔히 전신 경련에 이어서 말기에는 혼수에 빠진다.

3. 예방 및 치료

열사병은 주위 환경의 온도와 습도가 높은 무더운 날씨에 통풍이 잘 안되는 곳에서 소가 체온의 발산을 하지 못해 발생하므로 축사 내에 습도가 높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. 소를 이동하기 위한 수송은 태양광선을 직접 쬐이지 않도록 차량에 차광막을 설치하고, 아침저녁으로 시원할 때에 옮긴다.

증상을 나타내는 소는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머리 뒤편에 냉수를 지속적으로 뿌려서 체온을 내려가게 하고, 생리적 식염수나 5% 포도당액의 정맥주사 등에 의한 대증요법으로 치료한다.